

모래놀이치료를 적용한 모-유아 중심의 애착관계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Effectiveness of an Applied Sand-Play Therapy Program
for Improving Mother-Child Attachment Relationship

김미정(Mi Jung Kim)¹⁾
정계숙(Kai Sook Chung)²⁾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mprove mother-child attachment relationship by goal-corrected partnership.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hree 5- to 6-year-old children with insecure attachment patterns and their mothers. The Mother-Child Attachment Intervention Program with Applied Sand-Play Therapy consisted of two steps, sand-play therapy for each mother and child for 8 sessions and three different intervention activities (activities for children only, mother education activities and mother-child cooperative activities) conducted for 12 sessions. Each of the therapy and the activity sessions ran for 40 and 80 minutes weekly. After completing the program, the mothers' representation of their parents changed positively, but the changes depended on their attachment classifications. All of the mothers' warm/responsive parenting behaviors increased despite some individual differences.

Key Words : 애착(attachment), 양육체계(caregiving system), 내적표상(internal representation),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s).

I. 서 론

1958년 Bowlby가 애착을 소개하면서 애착관계를 행동체계(behavioral system)라는 동물행동학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즉, 영아가 양육자에 대해 근접성을 추구하고 유지하려는 애착행동을 하나의 행동체계로 보았고, 부모의 양육행동도 행동체계에 의해 인도된다는 것이다(Bowlby,

¹⁾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²⁾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Mi Jung Kim,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609-755, Korea
E-mail : youcu2@hanmail.net

1982). 이 관점은 이후 Solomon & George(1996)에 의해 더 발전되었는데, 이들은 유아가 돌봄을 구하고 유지하려는 본능적인 경향성을 갖고 태어나듯이 부모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려는 경향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Bowlby(1982)는 이런 부모의 행동체계를 양육체계(caregiving system)라 부르며 부모의 호혜적인 양육체계에 의해 유아의 애착체계가 보완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모-유아 애착관계는 유아의 애착체계와 부모의 양육체계가 통합된 한 쌍의 체계(a dyadic system)로서 애착 대상과 일방향적인 상호작용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으며 호혜적으로 강화 발달되는 양방향적인 것이다(임숙빈, 1997).

한 쌍의 체계로 기능하는 애착체계와 양육체계는 모-유아 관계에서 파트너 각자가 갖고 있는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 또는 내적표상, 그리고 행동 패턴이라는 두 수준으로 표상될 수 있다(Main, Kaplan & Cassidy, 1985). 즉, 개인의 초기 대인관계 경험을 통해 발달하는 내적작동모델이 기억을 조직하고 행동을 유도하므로(Main, 1991), 개개인의 관계에 대한 내적작동모델의 다양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의 애착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결정해 주는 각각의 내적작동모델인 내적표상은 개인의 행동체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근원적인 요인은 어머니 자신의 부모에 대한 내적표상이다(Crowell & Feldman, 1988; Grossmann & Grossmann, 1991; Van IJzendoorn, 1995). 이는 대부분 어머니들의 양육행동의 질은 어머니 자신의 발달적 경험과 그들 자신의 근원가족에서의 경험과 관련된다(Main, et al., 1985)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불안정 애착유아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내

적표상 역시 어머니에 대한 애착행동에 근원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Zeanah, Mamme과 Liberman(1993)은 불안정 애착유아들에 대한 안전기지로서의 상담자의 역할을 가정하지 않고는 이들을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자기 자신과 애착인물에 대한 유아의 내적표상은 새로운 애착관계로서 변화 가능하며, 이것이 유아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입장(Bowlby, 1980)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체계란 상호의존적이며 상호작용하는 부분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이러한 체계의 구성요소의 상호관계는 체계 내 상호교류 기능이라는 새로운 특성을 발생시킨다(신혜섭, 1998)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체계의 두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 자신의 부모에 대한 내적표상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원활하게 상호교류 할 수 있도록 모두 변화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유아의 애착체계도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내적표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유아의 반응성이라는 애착행동의 변화도 함께 요구되는 것이다(심은미, 2001; Lutkenhaus, Grossmann & Grossmann, 1985).

이처럼 어머니의 양육체계와 유아의 애착체계가 한 쌍의 체계로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유아 각각의 내적표상 차원과 행동적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어머니와 유아의 양육/애착체계 중 애착대상에 대한 내적표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표상 차원의 중재접근을 살펴보면, 먼저 애착이론에서는 상담자의 정서적 이해(Main, 1990)를 바탕으로 어머니(유아)와 상담자와의 신뢰롭고 지지적인 새로운 애착관계(Bowlby, 1980)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French & Alexande(1946)는 교정적 정서적 경험, Liberman & Pawl(1993)은 교정적 애착 경험이라고 명명하였다(서수정, 2002 재인

용). 특히, 어머니의 경우 정신분석적 접근의 Fraiberg(1980)는 통찰을 중재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즉,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양육 경험이 현재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무의식 수준에서 의식 수준으로 끌어내어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자동적으로 일어났던 자녀에 대한 부정적 사고와 부적절한 양육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와 유아 각각의 내적표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중재의 초점은 새로운 애착관계 형성과 통찰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모래놀이치료는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관계를 모자의 일체성(mother-child unity)으로 표현하는 놀이치료 기법이다. 즉, 모래놀이치료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신뢰관계가 필히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심재경, 1994). 또한 모래놀이치료에서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비지시적인 태도로 수용과 존중을 표현하므로 내담자가 모래상자에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면 함께 감탄하고, 투쟁하는 장면을 만들면 함께 투쟁하고, 내면의 비참하고 참을 수 없는 아픈 자리를 만들면 함께 아파하게 된다(김보애, 2003). 이는 무의식 속에 잠재된 욕구를 모래놀이 작품으로 표현하여 의식화하는 통찰의 경험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Kalff, 1966). 나아가 모래놀이치료는 많은 소품 가운데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여 모래놀이 작품을 만들어 자신의 내면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시각화하게 하므로, 통찰을 얻기 위한 최고의 매개물이 될 수 있다. 모래놀이치료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언어적 능력이 제한된 유아와 초기 애착경험을 자발적으로 노출하기를 꺼려하는 어머니에게 애착경험에 대한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재구조화 하는 통찰이 가능한 중재방

법이 될 수 있다.

어머니와 유아의 양육/애착체계 중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행동에 대한 행동적 차원의 중재는 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함께 애착발달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 유아기의 애착발달단계는 목표 수정된 협력관계로서, 어머니와 유아 양쪽이 공동의 목표 또는 계획을 구성하고 수행하기 위해 의도적인 방식으로 작용해야 한다(Bowlby, 1988). 이를 위해 어머니에게는 유아와의 의사소통 기술 및 문제해결전략 기술 등이 필요하며, 유아에게는 자신의 목표 뿐 아니라 어머니의 목표에도 주의를 기울여서 자신의 의견을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행동이 요구된다(Speltz, 1990). 따라서 어머니에게는 민감성과 반응성을 바탕으로 유아기 발달에 적절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유아에게는 연령에 맞는 애착행동으로서 어머니에 대한 반응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어머니와 유아 사이에 진정한 목표 수정된 협력적인 애착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유아의 애착체계는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내적표상과 애착행동이며 어머니의 양육체계는 어머니 자신의 부모에 대한 내적표상과 유아에 대한 양육행동으로 정의되므로, 모-유아 간 애착관계 개선 프로그램은 유아와 어머니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행동과 표상차원을 함께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모-유아 양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표상 및 행동 변화에 초점을 두고 모래놀이치료를 적용하여 표상차원과 행동차원으로 구성된 두 단계의 모-유아 중심의 애착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머니의 양육체계 및 유아의 애착체계의 변화와 더불어 모-유아 애착관계의 개선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여기에서는 일차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체계의 변화 효

과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모래놀이치료를 적용한 모-유아 중심의 애착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통하여 불안정 애착유아 어머니의 양육체계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 1-1. 표상 차원 프로그램 과정에서 불안정 애착유아 어머니의 자신의 부모에 대한 내적표상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 1-2. 행동 차원 프로그램 과정에서 불안정 애착유아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II. 모래놀이치료를 적용한 모-유아 중심의 애착관계 개선 프로그램 개발

1. 프로그램의 목적

본 연구의 모래놀이치료를 적용한 모-유아 중심의 애착관계 개선 프로그램은 불안정 애착유아의 애착체계와 어머니의 양육체계의 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유아와 어머니 간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체계를 변화시킨다.

어머니는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모자 일체성을 경험하고, 어머니의 초기 애착 경험을 통찰하여 자신의 부모에 대한 내적표상을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더하여 행동 차원의 프로그램으로서 어머니교육활동과 같은 집단적이고 직접적인 중재를 통해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불안정 애착유아의 애착체계를 변화시

킨다.

불안정 애착유아는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상담자와의 모자 일체성의 관계를 경험한 후, 행동 차원의 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에 대한 반응성을 높임으로써 애착행동을 증진시킨다.

셋째, 불안정 애착유아와 어머니간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이루도록 한다.

불안정 애착유아와 어머니에게 표상 차원과 행동 차원의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 각각의 내적표상과 행동상의 변화를 도모한다. 특히, 행동 차원 프로그램 중 모-유아 협력적 활동을 통해 모-유아간 새로운 정서적 경험과 협력활동을 경험하여 유아기 발달단계에 맞는 목표 수정된 협력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2.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모-유아 중심의 애착관계 개선 프로그램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제공되는 두 가지 하위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표상 차원의 프로그램은 어머니와 유아 각각의 내적표상의 변화를 위한 개별적인 중재이며, 행동 차원의 프로그램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행동 향상을 위한 모-유아 집단 중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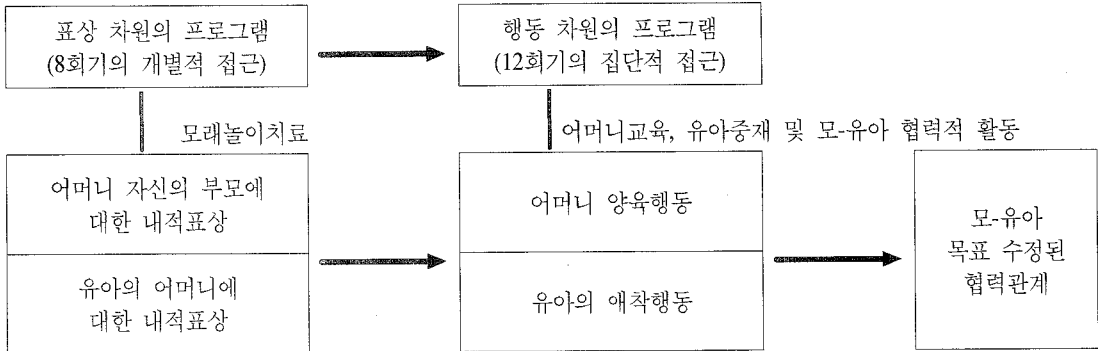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구성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1) 표상 차원의 프로그램

(1) 목적

표상 차원의 프로그램은 유아와 어머니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근원적인 내적표상의 변화에 목적이 있다.

먼저, 불안정 애착유아는 무엇보다 상담자와 온정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상담자의 안



〈그림 1〉 모래놀이치료를 적용한 모-유아 중심의 애착관계 개선 프로그램 구성도

전기지 역할을 경험하도록 한다(Bowlby, 1980). 어머니를 위한 표상 차원의 프로그램은 어머니로 하여금 첫째, 상담자와의 신뢰롭고 지지적인 새로운 애착관계를 통하여 정서적 이해(Main, 1990)를 경험하게 한다. 둘째, 초기 애착경험을 자발적으로 노출하여 자신의 부모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게 한다. 셋째, 초기 애착경험을 통찰하여 깨달음(Fraiberg, 1980)으로써 초기 애착경험을 재구조화하게 한다. 넷째, 초기 양육경험이 현재 자신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게 한다.

(2) 내용 및 방법

표상 차원의 프로그램은 불안정 애착 유아와 그 어머니들에게 모래놀이치료를 통한 개별적 접근을 취하였다. 먼저, 불안정 애착유아의 모래놀이치료는 유아가 원하는 모래놀이 작품을 자유롭게 만들고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때 상담자는 유아가 만든 모래놀이 작품을 함께 음미하고 감상하여 통찰하게 함으로써 모자 일체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불안정 애착유아 어머니를 위한 모래놀이치료의 회기별 주제는 어머니 자신의 부모에 대한 내적 표상의 변화를 위해 모래상자를 통해 현재 삶의 경험과 감정이 아니라 과거 애착대상과의 경

험과 감정을 투사하여 통찰할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주제 선정의 기본 틀은 부모-자녀관계의 향상을 위해 모래놀이라는 매개물을 상담자가 창의적으로 치료의 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Carey(2002)의 주장과 일반적인 상담의 과정, 즉 치료적 관계를 조성하고 모래놀이치료에 대한 저항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촉진단계, 자신의 문제를 더욱 개방적으로 탐색하도록 하는 변화단계 및 내담자의 성장영역에 대해 확인하고 행동하도록 도와주는 행동단계(이재연·서영숙·이명조, 2004)에 근거하였다. 아동상담전문가 및 아동상담사 각 1인이 함께 선정한 구체적인 모래놀이치료의 주제는 다음 <표 1>과 같다.

어머니와 유아의 모래놀이치료의 구체적 진행 방법은 첫째, 모래상자 꾸미기로서 내담자(어머니, 유아)가 모래상자를 꾸미는 동안 상담자는 그의 작업을 관찰자로서 지켜보고 요청이 있으면 대화에 참여하거나 또는 필요한 소품을 찾도록 도와주었다. 둘째, 함께 경험하기로서 모래상자가 다 꾸며지면 내담자가 위치를 바꾸어가면서 자신의 작품을 상담자와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상담단계로서 상담자는 모래상자의 세계를 만든 순서대로 확인하여 주고 전체 장면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도록 요청하거나 그 위의 소품들에 대해 내담자의 다양한 연상을 끌

〈표 1〉 표상 차원의 프로그램 : 어머니 모래놀이치료 회기별 주제

회기	주 제	내 용
1	동적가족 모래상자	· 어머니에게 근원가족을 나타내는 동물인형을 선택하게 하여 가족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을 모래상자에 표현하도록 한다. · 가족을 나타내는 동물인형에 대해 설명하고, 모래상자에 표현한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2	기억하고 있는 가장 어린시절 경험	·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린 시절의 경험을 모래세계로 만들고, 그 경험과 감정을 탐색하도록 한다.
3	어린시절 화나고 속상했던 경험	· 어린시절 화나고 속상했던 때(아프거나, 다쳤던 때)를 모래세계로 만들고 그 경험과 감정을 노출시키고 탐색하도록 한다.
4	기억하기 싫은 어린시절 경험	· 어린시절 가장 싫었던 기억을 모래세계로 만들고, 그 경험과 감정을 노출시키고 탐색하도록 한다.
5	어머니와 나	· 어린시절 어머니와 관련된 경험을 모래세계로 만들고, 그 경험과 감정을 노출시키고 탐색하도록 한다.
6	아버지와 나	· 어린시절 아버지와 관련된 경험을 모래세계로 만들고, 그 경험과 감정을 노출시키고 탐색하도록 한다.
7	어린시절 가장 좋았던 경험	· 어린시절 가장 좋았던 기억을 모래세계로 만들고, 그 경험과 감정을 탐색하여 현재 자녀 양육과 관련해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8	동적가족 모래상자	· 1회기와 동일함

어내는 질문과 내담자가 경험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특히, 어머니의 경우에는 자신의 부모에 관한 내적표상을 충분히 표현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질문에 초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내담자에게 자신의 모래상자 세계를 어떻게 사진으로 남길 지 물어보고 사진을 찍었다. 이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이 만든 모래 상자의 세계에 대해 새롭고 궁극적인 조망을 하게 하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을 표현하도록 도와주기 위함이다 (노치현 · 황영희, 1998).

보다 구체적인 상담자의 지시 및 질문내용과 모래놀이치료 과정은 다음 <표 2>와 같다.

2) 행동 차원의 프로그램

(1) 목적 및 구성

행동 차원의 프로그램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행동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 보다 직

접적이고 집단적인 중재이다. 따라서 목표 수렴된 협력관계 개념이 중심이 되는 Speltz(1990)의 Seattle접근법과 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중심으로 어머니 교육활동, 유아중재 활동 및 모-유아 협력적 활동 등과 같은 3가지 요소로 구성하였다.

(2) 구성 요소별 목표

① 어머니교육활동의 목표

모-유아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위해 어머니에게 유아기 발달에 적절한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행동과 Speltz(1990)의 Seattle접근에서 제시한 자녀와 관련된 발달적 문제 이해하기, 유아의 자율성 인정하기, 어머니와 유아의 응집적인 대화 기술 발달시키기, 적절한 제한 설정방법 익히기 및 문제해결 전략 익히기 등을 목표로 하였다.

② 유아 중재활동의 목표

유아 중재활동은 유아가 자신의 목표뿐 아니

〈표 2〉 1 단계 모래놀이치료 회기의 진행순서

실시 순서		상담자 지시 및 질문 내용
1	세계 만들기 (모래상자 꾸미기)	1. 상자를 보여주고 마른 모래와 젖은 모래를 한 번씩 만져보도록 한다. 모래를 만지면서 약간씩 움직여보면서 모래의 느낌을 느끼도록 하고, 바닥의 파란색 을 보여준다(첫 회기만). 2. 선반 위에 있는 인형들을 집어서 만져보게 하면서 소개해 준다(첫 회기만). 3. 유아가 자발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요구하고 만들 수 있도록 한다(어머니에게는 정해진 주제를 준다). 4. “여기 있는 모래와 장난감을 사용하여 뭐든지 좋으니까, 만들어 보세요.”라고 한다.
2	함께 경험하기	1. “다 만들었으면 이야기 해 주세요.”라고 한다. 2. 다 만든 모래상자 작품을 어머니가(유아) 찬찬히 훑어보게 하면서 작품을 음미하도록 한다. 3. “모래상자를 둘러보니 어떤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에 더 넣고 싶은 것이 있으면 놓아도 되고, 빼고 싶은 것이 있으면 빼도 됩니다. 다시 한번 놓아보세요.”
3	상담	1. 모래상자를 돌면서 드는 느낌을 이야기하게 한다. 2.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은 어디입니까?”, “모래세계에서 자신이 있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이때 인형들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이 느끼는 기분대로 바꾸어 보세요(보다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할지 바꾸어보세요.) 어떻게 바꾸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모래상자를 보고 어떤 기억이 떠오릅니까?” “과거 부모와의 관계가 현재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가요?”
4	사진 찍기	1. 어머니(유아)가 있는 위치 또는 원하는 위치에서 사진 찍는다.

라 어머니의 목표에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 어머니에 대한 반응성을 높일 수 있기 위해 Speltz(1990)의 Seattle 접근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아의 자기 효능감 인식하기, 유아 자신의 정서와 행동 조절하기 및 문제해결 전략 익히기 등에 초점을 두었다.

③ 모-유아 협력적 활동의 목표

모-유아 협력적 활동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모-유아간의 긍정적이고 즐거운 정서적인 관계경험을 통해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내적 표상의 변화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모-유아간에 파트너로서 서로에게 중요한 목표를 이야기하고 서로의 관심에 주의를 기울이며, 공통적 목표를 협상하고 조절할 수 있는 실제적인 협력적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유아와 어머니가 어머니 교육활동과 유

아 중재 활동에서 획득한 여러 가지 전략을 모-유아 협력적 활동시간에 실제로 적용해 봄으로써 그 기술을 더욱 견고하게 한다.

(3) 내용 및 방법

① 어머니교육활동

교육활동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매 회기마다 약 40여 분간 진행하였으며, 교육 방법은 토론, 강의 등이 사용되어졌다. 진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토론은 매 회기 한 주 동안 어머니가 자신의 양육행동을 스스로 돌아보고 수정하고자 하는 점과 변화된 점 등에 대해 제시하면 이를 다른 어머니들과 함께 토론을 하였다. 또한 이전 회기 모-유아 협력적 활동 시 나타난 모-유아 상호작용에 대하여 부모교육자의 개별적인 피드백이 있었다.

둘째, 강의는 모-유아 애착관계 개선을 위해

〈표 3〉 행동 자원의 프로그램 : 회기별 어머니 교육활동 목표 및 내용

회기	목 표	주 제
1	유아의 발달적 문제 이해하기	애착과 애착행동의 발달
2	유아의 자율성 인정하기	반응적인 어머니
3		자녀에게 자신감을 주는 양육태도
4	응집력 있는 의사소통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방해하는 의사소통
5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의사소통(격려하기)
6		신뢰감을 높여주는 의사소통 I(효과적인 경청)
7		부모의 신뢰감을 높여주는 의사소통 II(나 전달법)
8	제한 설정하기	자녀를 제한하는 방법(화 내기)
9	문제해결하기	문제해결 방법 찾기 I(제한하기)
10		문제해결 방법 찾기 II(자기 만족감 느끼게 하기)
11		문제해결 방법 찾기 III(자연적 논리적 귀결)
12		어머니와 아이의 조화성(조화의 적합성)

설정된 하위목표에 적합한 내용들을 부모중재 관련 자료(김정혜, 2005)와 STEP(이경우 편역, 1985)을 참고하여 제작된 유인물을 매 회기 어머니에게 제공하였다. 회기별 어머니교육활동 목표 및 내용은 다음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② 유아 중재활동

유아 중재활동은 불안정 애착유아를 대상으로 매 회기마다 자유놀이, 시작활동, 본 활동 및 정리활동으로 나누어 약 40여 분간 진행 하였다. 본활동은 프로그램의 하위목표에 따라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활동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자유놀이는 중재활동 시작 시 중재교사가 유아들과 개별적인 신체적 접촉을 통해 매주 유아의 변화를 체크함과 동시에 유아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하는 시간이다. 이어지는 시작활동은 중재교사와 흥겨운 노래와 율동을 통해 서로 인사를 하였다. 본활동에서는 중재교사와 또래들이 함께 재미있는 협력게임과 협력과제 활동을 통해 회기별 활동목표를 성취하도록 하였다. 본

활동의 또래간 협력 작업 및 협력게임은 단계별로 실시되었는데, 1~4회기는 구성원 탐색을 위하여 두 명의 유아가 짝지가 되어 하는 한 쌍 협력활동을 주로 실시하였고, 5~8회기는 한 쌍 협력활동과 모든 유아가 함께 협력하는 전체 협력활동을 번갈아 실시하였으며 9~12회기는 주로 전체 협력활동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정리활동은 다 함께 교실을 정리하며 연결되는 모-유아 협력적 활동을 위해 어머니를 맞이하는 준비를 하였다.

유아 중재활동의 회기별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③ 모-유아 협력적 활동

모-유아 협력적 활동은 불안정 애착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매 회기마다 자유놀이, 시작활동, 본활동 및 정리활동으로 진행하였다. 활동과정은 다음과 같다.

자유놀이는 어머니들이 집단 상담실로 이동하여 유아와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는 시간이다. 그

〈표 4〉 행동 차원의 프로그램 : 회기별 유아 중재활동의 목표 및 내용

회기	목표	활동구성	시작활동	본활동
1	자기 효능감 인식하기	한 쌍 협력적 활동	친구야, 너의 이름은 뭐니?	물건 찾기, 색깔 병 만들기
2			그대로 멈춰라!	얼굴 꾸미기, 계란 만들기
3			나 따라 해봐요	계란 색칠하기, 식빵얼굴 만들기
4			물 풍선 차기	물감 불기, 과자샌드위치 만들기
5	정서· 행동 조절하기	한 쌍 및 전체협력 활동	당근 뽑기	병풍 만들기, 매추리알 까기
6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노래에 맞춰 연주, 키클식물 그리기
7			오리,오리 거위게임	우드락 판화Ⅰ, 땅콩 까먹기Ⅰ
8			장님놀이	우드락 판화Ⅱ, 땅콩 까먹기Ⅱ
9	문제해결 전략 익히기	전체 협력적 활동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물 샌드위치 만들기, 선장놀이
10			꼬리잡기	과자 집 만들기, 과자 집 먹기
11			늑대님, 몇 시 입니까?	파우더 찍기, 파르페 만들기
12			둘이 살짝	엄마에게 주는 선물, 식빵 케익 만들기

리고 시작활동은 노래나 율동을 통해 모-유아간의 따뜻한 신체적 접촉을 유도할 수 있는 정서적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본활동은 재미있는 모-유아 협력게임, 모-유아 협력과제 활동이었고, 정리활동은 다 함께 모여 노래나 율동을 하며 작별 인사를 하고 정리하는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본활동의 하위목표와 활동 구성은 유아 중재

활동과 일관성을 갖기 위하여 동일하게 하였으며, 총 12회기 중 6회기부터는 유아 중재활동에서 실시했던 시작활동을 모-유아 협력적 활동 시 다시 반복 하였다. 이는 유아가 어머니에게 놀이 방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유아 간에 공동의 활동에 대해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중점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표 5〉 행동 차원의 프로그램 : 회기별 모-유아 협력적 활동의 목표 및 내용

회기	목표	활동 구성	시작활동	본활동
1	자기 효능감 인식하기	구성원 탐색 및 모-유아 협력적 활동	친구야, 너의 이름은 뭐니?	담요타기, 로션 맛사지
2			“부릉 부릉” 손뼉 치기	풍선 치기, 딸기 쥬스 만들기
3			둘이 살짝	나는 누구일까요, 사진꾸미기
4			동대문 놀이	수건 줄다리기, 핸드 페인팅
5	정서· 행동 조절 하기	모-유아 협력적 활동 및 전체 협력적 활동	안아봐요	볼링게임, 나뭇잎 따기
6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미이라 탈출, 도너츠 먹기
7			오리, 오리 거위게임	신문지 펀치, 신문지 찢기
8			장님놀이	색깔 점토 만들기, 점토 던지기
9	문제해결 전략 익히기	모-유아 협력적 활동 및 전체 협력적 활동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협동 의자, 난타 공연
10			꼬리잡기	꼬지 신체표현, 꼬지 만들기
11			늑대님, 몇 시 입니까?	사진액자 만들기Ⅰ, 신문지 배
12			둘이 살짝	사진액자 만들기Ⅱ, 선물 교환

회기별 모-유아 협력적 활동의 내용은 다음 <표 5>와 같다.

3. 프로그램 운영

본 연구의 모-유아 중심의 애착관계 개선 프로그램은 8주간의 표상 차원 프로그램과 12주간의 행동 차원 프로그램으로서, 총 20주 동안 매주 1회씩 총 80여 분간 집단 상담실과 개별 상담실에서 진행되었다.

표상 차원의 프로그램은 개별적 접근으로서 유아가 먼저 아동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모래놀이치료 연수를 받은 연구자에 의해 40여 분간 개별 모래놀이치료를 받은 후 연이어 어머니의 개별 모래놀이치료가 40여분간 진행되었다. 8주간의 표상 차원의 프로그램이 완료된 후 행동 차원의 집단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집단 상담실에서 2명의 중재 교사가 약 40여 분간 유아 중재활동을 진행하는 동시에 그 시간 동안 연구자 1인과 부모교육 보조자로서 1명의 석사 과정생이 어머니 교육활동을 진행하였다. 40여분간의 유아중재활동과 어머니교육활동이 끝나면 연이어 40여 분간 모-유아 협력적 활동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

<표 6> 대상유아의 특징

	유아 A(남/만6세)	유아 B(남/만5세)	유아 C(남/만5세)
가족 구성	· 부(39세/회사원/주말부부) · 모(40세/주부) · 남동생(4세)	· 부(39세/운수업/주말부부) · 모(36세/주부) · 누나(9세/초등)	· 부(40세/제과기술자) · 모(31세/남편의 일 도움) · 여동생(4세/유치원생)
ASCT	불안정 비조직	불안정 비조직	불안정 회피
의뢰 사유	· 유치원 가는 것, 밥 먹는 것 등 매사 의욕이 없음 · 놀이도 즐겁게 하지 않고, 또래와 어울리지 못함 · 자기 물건에 애착이 없고, 잠을 푹 자지 못함	· 낮선 곳에 가면 적응하기 힘들(문화센터에 가면 40분 중 30분을 울고 있음) ·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혼자 노는 경우가 많음 · 매우 산만하고, 과잉행동 함	· 사사로운 문제로 자주 울(거의 하루 종일 울) · 얼굴표정이 어둡고 무표정임 · 혼자 노는 경우가 많음
양육 환경	· 임신 중 모의 생각이 복잡해서 2-3시간밖에 못잠(어릴 적에 행복하지 못했던 것을 자꾸 생각함) · A출생 후 시모가 모에게는 인색하였고, 시누에게만 잘하는 것을 보고 많이 서럽고 외로웠음 · A 영아기 때,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교회 일을 보느라 아이를 주로 남에게 맡겼음 · A가 4세 때 2년 정도 우울증이 있었고, 지금도 모는 늘 몸이 피곤하고 나른함 · 동생은 뭘 해도 이쁘고 귀엽게 보이는데, A는 그렇지 않음	· 모와 떨어지기를 너무 힘들어 했고, 너무 산만하고 늘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등 과잉행동으로 모를 힘들게 하였음 · 유치원에서 왕따도 당하고, 눈도 안 맞추고, 자폐아처럼 자기 머리를 치고 박기도 하였음 · 3세 때 부부갈등으로 B를 두고 한달간 집을 나갔다 들어왔더니 냇 나간 아이처럼 3일간 모를 쳐다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움직이지조차 않았음(모가 없는 것을 알고 부터 계속 울었음)	· 유산 위험이 있었음 · C는 모와 함께 있을 때 잘 웃지 않음 · 모는 아침부터 밤까지 남편과 함께 제과점을 운영하므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함 · 모의 여동생이 어린이집에 갔다 온 C와 C의 동생과 사촌을 함께 봄 · 모는 밤늦게 들어와서 C의 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함 · 모 자신은 아이와 잘 놀아주는 편이 아님

<표 6> 계속

	유아 A(남/만6세)	유아 B(남/만5세)	유아 C(남/만5세)
유아에 대한 모의 양육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정을 표현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 사랑스런 마음이 지금까지 없음 · 애정표현은 모가 의식하지 않으면 못함 · 모가 욕박지르고, 매를 들면서 A의 고집도 많이 꺾고, 기를 많이 죽였음 · A가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면 참으려하다가도 외락 성을 내거나 고함을 치게 됨 · 칭찬, 신체접촉 등은 거의 하지 않았고, A가 모에게 화내는 것은 참을 수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집 피울 때 바닥에 때굴때굴 구르고, 머리를 문에 박아서 모가 매를 많이 들었음 · 모는 B를 때리거나, 어두운 곳으로 내쫓기도 하고, 벌도 세우는 등 강압적으로 양육하였음 · 때로 유아를 다스리는 경우가 많았음 · 달 신경 쓰도록 빨리 컸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년생의 동생이 있어서 동생을 더 먼저 봐주게 되는 경우가 많았음 · 업어주거나 안아주는 일을 잘해 주지 못했고, 눕혀 놓거나 유모차에 누워놓는 경우가 많았음 · 모는 유아C가 어린이집에서 배운 것이나 친구와의 놀이 등 하루 일과에 대해 거의 물어보지 않음 · C가 잘못했을 때는 굉장히 엄한 편 · C가 자주 울기 때문에 욕박지르게 되고, 혹은 달랠 때도 있지만 때리기도 함

Ⅲ. 프로그램 적용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면담과 사전 검사를 통하여 모-유아간 불안정 애착유형으로 판별되어진 3쌍

의 만 5, 6세의 유아와 그 어머니들이었다. 연구 대상 유아와 어머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각각 <표 6>, <표 7>과 같다.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특징은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대상어머니의 특징

	어머니 A	어머니 B	어머니 C
연령/학력	· 40세/대졸	· 36세/고졸	· 31세/고졸
AAI	불안정 몰입	안정 자율	불안정 무시
원가족	· 친정부(돌아가심), 친정모(가출), 오빠, 언니, 모	· 친정부, 친정모, 모, 남동생 2명	· 친정부, 친정모, 언니, 모, 동생 2명
모의 어린시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모가 모 5세때 가출하여 외갓집에서 살았고 이때 외할머니, 이모로부터 눈치 보며 살았음 · 이후 초등 저학년까지 큰집에서 자랐으나 눈치밥 먹고 성장함 · 초등 고학년 때 아버지와 오빠하고 만 도시에서 자람(언니는 따로 삼) · 친정부 돌아가시고 현재까지 언니, 오빠와 거의 연락 안 함 · 슬프고 속상하고 아픈 일이 있어도 한 번도 표현하고 산적이 없고 그냥 참고 넘어갔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 시절 친정부모와 형제, 할머니와 함께 살았음 · 친정부모는 농사일로 항상 바빠서 접촉할 시간이 적었음 · 친정모와 할머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음 · 아파서 학교에서 와도 집에 아무도 없어 서운할 때가 많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시절 많이 가난하였음 · 친정부모가 항상 바빴음 · 친정부모가 아침에 나가면 밤에 들어 오시는데, 그 사이 형제들끼리 집안 일을 하면서 자냄(모가 나중에 엄마가 되면 집에서 아이들을 맞이하겠다고 결심했지만 현재 그러지 못함) · 친정부모에게 죽도록 맞은 경험이 많음 · 할머니와 친정모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으며, 할머니가 모 자신도 굉장히 미워하였음

2. 연구도구

1) 면담지

본 연구에서는 대상유아와 어머니의 애착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면담지를 사용하였다. 면담지는 유아의 주요 발달 특징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태아기 때의 신체적/정서적 환경, 출산형태 및 건강상태, 출산 직후의 병력과 치료 경험, 신생아기/영아기/유아기 때의 병력과 양육환경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현재의 주 호소 문제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 면담은 약 120분-150분이 소요되었다.

2) 성인 애착 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 : AAI)

어머니의 자기 부모에 대한 내적 표상 측정은 George, Kaplan & Main(1985)의 성인 애착 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 : AAI)을 장미자(1998)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여 안정 자율형, 불안정 몰입형, 불안정 무시형으로 분류하였다.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문지 형식에 따라 순서에 맞추어 질문하되 추후 심층적 질문이 뒤따랐다. 면접질문의 적절성과 시간, 녹음의 정도, 녹음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3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예비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어색한 말투나 질문이 어려운 경우, 뜻이 모호한 경우 수정하였다. 또한 면접반응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자 중 1인이 피면접자가 되어 면접을 받았다. 모든 면접은 AAI 교육을 받은 연구자 1인이 실시하였으며 전 과정을 CCTV로 녹화하여 전사하였다. 면접내용의 분석은 본 연구자 중 1인이 박사 1인과 박사과정생 1인에게 AAI 분류체계를 사전 교육하여 전사본을 각자 읽고 별도로 분석한 다음, 차이가 있는 경우

에 대해서는 토의를 거쳐 일치된 유형을 얻었다.

3)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 ASCT)

연구대상 유아의 어머니와의 애착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애착 이야기 완성과제’는 Bretherton, Ridgeway & Cassidy(1990)에 의해 개발된 표상에 의한 애착측정 도구로 표준화된 실시절차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진숙(2001)이 변안한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를 사용하여 모자 애착관계 유형을 유아의 나레이티브를 통해 측정하였다. 모자 애착관계에 대한 유형 분류는 연구자 중 1인, 박사 1인 및 박사과정생 1인에 의해 수행되었다. 각 이야기에 대한 평정과 유형 분류기준을 참조하여 유형 분류를 일치시키는 연습을 한 후 전사본을 각자 읽고 별도로 분석한 다음 유형을 분류하였다. 분류된 유형이 분석기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녹화된 자료와 토의를 통해 일치된 애착 유형을 얻었다.

4)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찰 체크리스트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찰 체크리스트는 Adam, Gunnar & Akiko Tanaka(2004)가 실험실의 5가지 상황(금지과제 상황, 자유놀이 상황, 정리 상황, 두 번의 문제해결 과제 상황)별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관찰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변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양육행동의 하위항목은 온정성, 민감성/반응성, 침해성, 지시의 질 및 좌절/무관심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5가지 모-유아 협력적 활동(자유놀이, 시작활동 1가지, 본 활동 2가지, 정리활동)에 대해 각각 양육행동의 하위항목별로 관찰하였다. 5점 Likert척도로서 양육행동의 각 하위항목에 대해 1점은 전혀 그런 행동이 보이지 않을 때, 2점은 그런 행동이 조금 보이지 않을 때, 3점은 보통일 때, 4점은 조

금 보일 때, 5점은 각 항목의 행동이 강하게 보일 때 또는 일관적으로 보일 때 채점하였다.

본 도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성격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하위항목 중 온정성, 민감성/반응성 및 지시의 질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온정적이고/반응적인 양육 행동적 특성이 강함을 의미하며, 하위항목 중 좌절/무관심 그리고 침해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침해적 양육행동적 특성이 강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Adam등(2004)에 의하면 민감성/반응성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87이고 좌절/무관심 척도는 .77이다.

본 연구에서는 녹화된 비디오를 통해 연구자 1인을 포함한 3인의 관찰자가 1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관찰하였다. 5가지 모-유아 협력적 활동에 대해 양육행동의 하위항목별로 관찰한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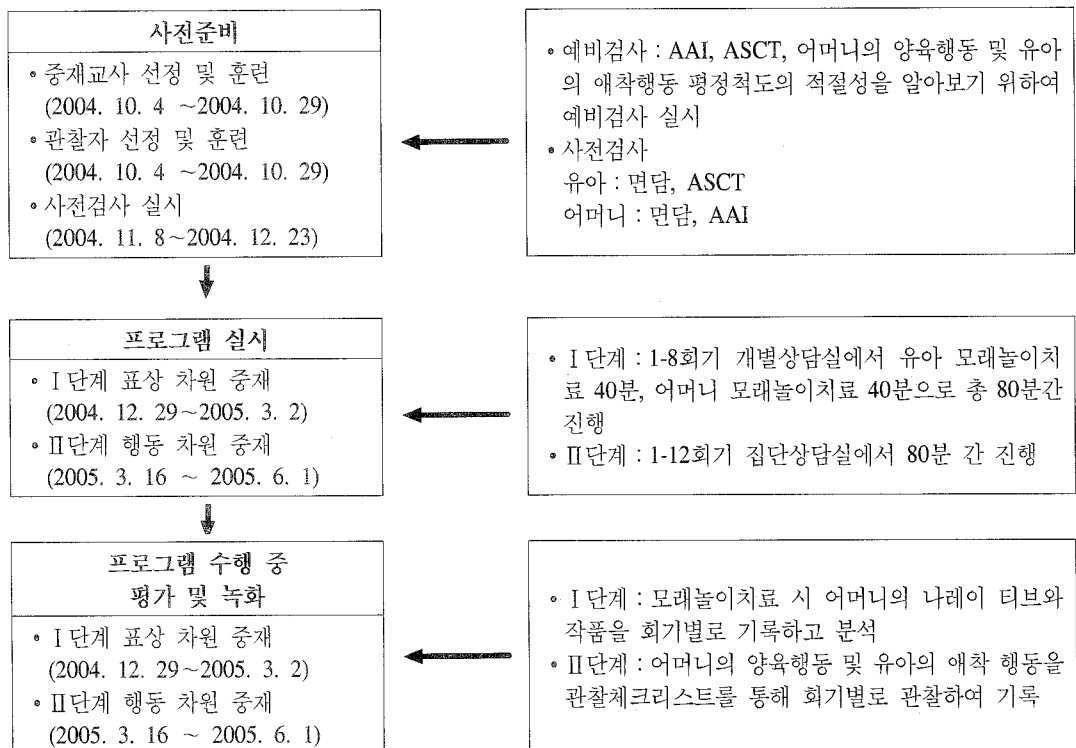
관찰자간 차이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분석하고 토의하여 일치된 점수를 부여하였다. 관찰자 3인의 일치된 점수를 토대로 하위항목별 5가지 활동에 대한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회기별로 제시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하여 사전준비, 프로그램 실시, 프로그램 수행 중 평가 및 녹화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절차를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4. 자료분석

<연구문제 1-1>을 알아보기 위하여, 표상



<그림 2> 연구절차

차원의 프로그램인 모래놀이치료 시 어머니의 나레이티브를 녹화 전사한 자료와 모래놀이 작품을 회기별로 분석한 자료를 통해 어머니 자신의 부모에 대한 내적표상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2>를 알아보기 위하여, 3인의 관찰자가 행동 차원의 프로그램 중 모-유아 협력적 활동에서의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하여 어머니 양육행동 관찰체크리스트로써 관찰하여 회기별 양육행동의 점수 변화를 제시하였다.

IV. 프로그램 적용 효과

1. 어머니의 양육체계 변화

1) 표상 차원의 프로그램 과정에서 어머니 자신의 부모에 대한 내적표상의 변화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내적 표상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표상 차원의 프로그램을 초, 중, 말기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주제를 제시하였다. 시기의 구분에는 모래놀이치료 과정의 주제와

〈표 8〉 어머니A의 자신의 부모에 대한 내적표상의 변화

시기	어머니 A : 안전기지 없이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어머니
초기	<p>특징 :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슬퍼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가 서구적으로 잘 생기셨어요. 근데 권위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능력도 없고(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음). 아버지가 저한테 한 말이라고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만 한 것이 기억나요. 아버지가 대화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고 하는 그런 대화는 해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하고, 무능력한지 무기력한지 모르겠어요(한참을 울기만 함)(1회기). · 아버지가 폭군처럼 집안을 잘 못 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나는 외롭고, 너무 위축되어가지고...(우느라 말이 자주 끊김). 무기력한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능력도 없고, 뭘 잘 할 자신도 없고 그래요(계속 울면서 이야기함)(2회기).
	<p>특징 : 부모에 대한 원망과 이해가 뒤섞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아버지랑 나랑 정서적으로 교감이 있거나 하진 않았어요. 마음으로 챙겨주거나 한 적이 없었어요(울음). 아버지 인생도, 자기 인생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되죠. 늘 술 마시고, 자기 인생이 힘들니까(울음). 저는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A도 내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A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5회기). · (모래상자를 보며) 엄마는 자식을 등지고 걱정하고 나서는 모습 같네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몰랐을건데. 세상이 이렇게 크고 외롭게 세상 앞에 대면하고 있네요(울음). (엄마를)여자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때 상황이 힘들었을거니까. 하지만 주위에서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들을 보고 참아서 잘 사는데... 엄마가 있었으면 내가 상처 안 받아도 됐을텐데, 내가 좀 더 잘 되었을텐데...(울음). 아버지가 술 마시고 병으로 여자 머리 때리고 상처내고. 아버지가 좀 그러니까 엄마도 고생하셨겠죠(6회기).
말기	<p>특징 : 여유와 희망을 말하기 시작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릴 때는 행복하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행복한 기억이 많았다면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고 덜 슬퍼했을텐데. 그러고 보니 A도 행복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울리고 야단치고 때리고 울어도 달래주지 않고. A한테 행복한 기억이 없어서 마음이 아프네요.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내려오니까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어요. 한가롭고 여유롭게 보여서 이 의자가(흔들의자) 참 마음에 들어요 지금 교대 편입하니깐 열심히 하고 싶어요(7회기).

촉진, 변화 및 행동단계라는 일반적인 상담과정이 고려되었다.

(1) 어머니A

어머니A의 내적 표상의 변화를 초, 중, 말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주제를 제시하고 요약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어머니A는 초기 성인애착면접에서 자신의 어린시절 경험을 이야기 할 때 고통스러워하였고 울먹이거나 눈물을 흘려서 이야기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애착대상에 대해 몰입되어

길고 문법적으로 혼란된 문장을 사용하고 말을 멈추지 못하는 등 Main과 Goldwyn(1993)이 제시한 불안정 몰입유형과 대체로 일치하였다.

불안정 몰입형인 어머니A는 프로그램 초기부터 자신의 경험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으며 매우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느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애착경험에 대해 억눌렀던 어머니 자신의 감정과 현재의 느낌을 쏟아내면서 점차 부모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어려웠던 환경을 고려하여 부모를 한 남자와 한 여자

<표 9> 어머니B의 자신의 부모에 대한 내적표상의 변화

어머니 B : 모래상자에서 반성과 깨달음을 얻는 어머니	
	특정 : 어린시절의 회상을 즐기다
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시절 얘기할라고 하니깐 애들하고 참 다른 것 같다 그지요?(웃음). 커 가지고 부모를 생각하게 되니깐(웃음). 엄마와 거리감이 좀 있었지요. 지금은 엄마하고 편하지만, 그 당시에 느낄 때는..다 털어놓을 만큼 편한 상대는 아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 동생들은 다 대학 나왔거든요. 근데 서운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차별받는 느낌은 듣지 않았거든요(1회기). · 옆집아줌마가 TV보고 싶으면 발 셋어라 하는게 그 나이에도 너무 자존심 상하고. 어려도 자존심은 다 있나 봐요(2회기).
	특정 : 모 자신의 양육경험과 양육행동을 연결 지어 생각하다
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엄마들의 반응은 똑같은 것 같아요. 공부할 시기니까. 엄마랑 저는 성격이 많이 급한 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이들에게 구분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때 엄마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딱딱 구분해 줬으면 좋았을텐데 그걸 못 해줘서 좀 그래요(4회기). · 엄마랑 장독대에서 햇살이 너무 좋아서 엄마랑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 하는 건데. 엄마랑 얘기 나눌 때. 행복했어요. 엄마가 참 자상한 편이에요. 매도 한 번도 안 들고, 인상도 크게 쓰지 않고. 자라오면서 그게 좋은 적도 있지만, 딱 자를 것 자르지 못하는 게 싫을 때도 있고. 제가 양육하는 게 엄마랑 좀 닮은 것 같아요. 딱딱 자르지 못하고(5회기). · 우리 아버지가 저를 의자에다 앉혀놓고 머리를 깎아 주시는 거예요. 동생들도 보고 있구요.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많아서 좋아요. 근데 아버지가 잔소리가 많으세요. 그래서 저도 애들한테 엄마는 이랬는데 너는 왜 안하니라는 말을 안 할려고 해요.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한 게 이해가 되긴 하지만(6회기).
	특정 : 유아B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하다
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가족에 대한 모래상자를 꾸미고) 이 때가 우리B를 낳고 친정에 있을텐데. 편안하고 행복하고. 큰 애는 아빠랑 있고, 아들 낳기를 원했는데 낳았고. 고맙죠. B가(7회기). · 요즘 B에게 욕박지르지 않으려고 해요. 자꾸 예전에 제가 받아왔던 양육을 생각하니까 B가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8회기).

로서 이해하게 되었고, 어머니 자신 역시 너무 어린나이부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여 초기 양육경험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 자신의 현재 성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깨닫는 등, 친정 부모와의 애착경험에 대한 기억의 재구조화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어린시절 자체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때 부모의 성격과 상황을 고려하며 부모를 이해하고자 하는 등, 경험에 대한 정신적 상태와 주관적 견해가 변화되고 재구성되었다. 또한 초기에 모래놀이에 배치한 어머니 자신을 상징하는 인형도 매우 작고 여린 존재의 인형에서 말기에는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미키마우스로, 그리고 앞으로 뻗어 있는 철길과 즐거운 악단을 배치함으로써 어머니 자신에 대하여도 긍정적으로 표상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아A에 대한 자신의 양육행동에 대해 자신의 어린시절 양육경험과 관련짓고 고민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2) 어머니B

어머니B의 내적표상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초, 중, 말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주제를 제시하고 요약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어머니B는 성인애착면접 시, 어린시절 애착관련 경험의 제시가 일관적이었으며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서도 조리 있게 이야기하였고 그러한 경험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진술했다. 또한 면담 시 면접자에게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는 등, Main과 Goldwyn(1993)의 안정 자율 애착유형과 대체로 일치하였다. 어머니B는 표상적 차원의 모래놀이치료에서 자신의 부모에 대한 내적표상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초기 양육경험을 회상함으로써 자신의 잘못된 양육행동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어머니B는 자신의 어린시절 양육경험을 통해 부모의 양육방법을 분석

하면서 자신의 양육행동과 관련지어 올바른 양육행동들을 스스로 획득하게 되었다. 즉, 부모의 바른 양육행동은 본받으려고 노력하였고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행동은 답습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부모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많이 상기하게 되었으며, 어린시절 부모의 양육행동 자체보다는 양육행동의 의도를 생각하며 부모를 이해하는 입장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어머니B의 모래놀이 작품은 초기부터 인형들이 모두 등글게 모여 있었으며 자신을 상징하는 인형 또한 긍정적이어서, 모래놀이 작품을 시리즈로 연결해 볼 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정적이었다.

(3) 어머니C

어머니C의 내적표상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초, 중, 말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주제를 제시하고 요약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어머니C는 성인애착면접 시 “잘 모르겠다”, “생각나지 않는다”와 같은 회피적 응답이 많았고 기억하지 못함을 자주 주장하였으며 면접 주제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였다. 부모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묘사(“귀여우세요”, “절 예뻐하세요”)를 하고 있지만 이와 대조되는 사례를 제시하는 등, Main과 Goldwyn(1993)의 불안정 무시유형과 대체로 일치하였다.

어머니C는 모래놀이치료 초기에는 자신의 부모와의 애착경험에 대해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는 등, 어머니 자신의 애착경험을 솔직하게 노출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회기가 갈수록 모래놀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작품 속의 자신과 직면하게 되었고, 더불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부모에게 원망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말기에도 어머니C는 자신의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현재 자신의 양육행동

〈표 10〉 어머니C의 자신의 부모에 대한 내적표상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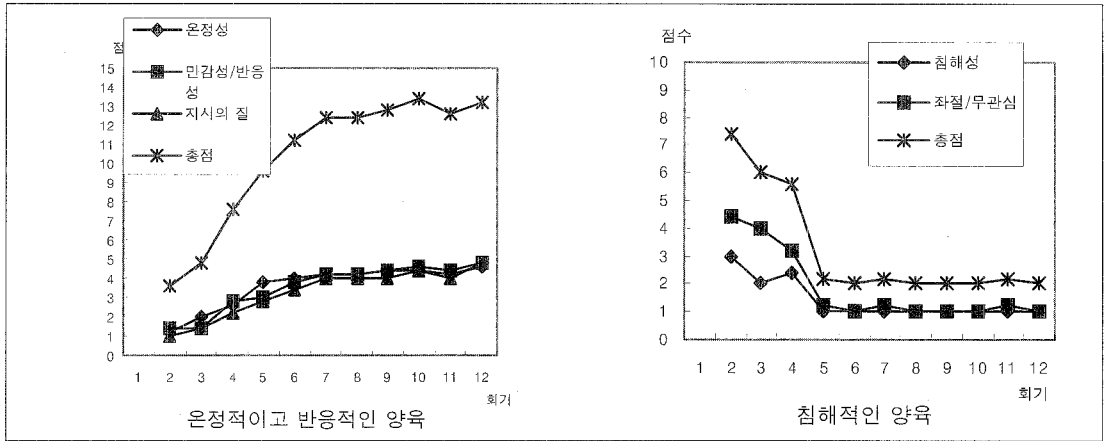
어머니 C : 부모에게 신임을 잃고 애정을 갈구하는 어머니	
	특징 : 어린시절 회상하고 표현하는 것이 힘들다
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뭐...우리 엄마는 너무 귀여우시거든요. 행동 하는거나, 말하는 거나(1회기). • 저녁때 어두워지면 엄마, 아버지가 일 마치고 와서 “누구야~~”라고 부르면 집에 갔죠. 그냥..뭐...부르니까...좋죠...(2회기). 학교를 많이 빠져 먹어서 많이 혼났죠. 뭐 손이 날라왔죠(2회기).
	특징 : 믿어주지 않는 친정부모에게 억울한 감정을 표현하다
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니가 나보고 자기 돈을 흠뻑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니라 해도 우리 가족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베개 들고 서 있으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내 말을 잘 안 믿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글씨를 못 쓰는데. “니 이것 언니가 대신 써 줬지?”하는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아버지가 막 혼냈어요. 구구단 못 외워서 야단도 많이 맞았어요.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말할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요(3회기). • 우리 엄마가 귀여운 행동을 많이 하세요. 아플 때도 옆에서 간호해주세요. 엄마는 내 말을 안 믿었어요. 굉장히 억울한 적이 있었죠. 내가 말하니까 엄마가 화를 마구 내면서. 하여튼 제일 무서워요 (5회기). • 어릴 적에 아버지도 손이 많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4명(자매들)은 몰려다녔죠. 아버지는 저를 특별히 예뻐했어요. 그런 건 평소에 느껴요... 아버지는 내가 심야영화 봤다고 심하게 야단쳤어요. 동생은 저보다 늦어도 아무 말 안 하시던데...언니도 야단 안 치던데...(6회기).
	특징 : 어린시절 함께 했던 가족과의 시간을 그리워하다
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 읽을 때 제일 행복해요. 누가 날 안 건드릴 때. (바다에 노는 장면들을 모래상자에 꾸미고 나서) 바다에 놀러간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온 가족이 다 같이 있으니까 행복해 보이네요(7회기). • 계곡에 갔다가 미끄러져서 발을 다쳤어요. 아버지 등에 업혀서 내려 왔을 때 그때가 가장 좋았어요. 만화책 읽다가 아버지가 다 찢어버려서...우리 집은 왜 이렇게 책 보는 것을 싫어하는지...그때 원망을 많이 했었죠(8회기).

과 어린시절 양육경험을 관련짓지 못하는 등, 초기 애착경험에 대한 기억의 재구조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어머니C의 모래놀이작품을 보면 1회기에 가족 모두가 뽀뽀이 흠뻑이 흠뻑인 상태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고 어머니 자신을 할아버지로 상징하여 자신을 과장되게 포장하는 등, 초기에는 가족간의 응집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장면을 만들었다. 그러나 회기가 갈수록 가족이 모두 함께 모여 있는 장면을 통해 자신의 바램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였고, 어린 아기로 자신을 상징하여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신의 어린 본 모

습에 직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불안정 몰입형인 어머니A는 초기 애착경험을 자발적으로 노출하면서 부모에 대한 감정을 표출하였고 초기 양육경험이 자신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 반면, 불안정 무시형인 어머니C는 자신의 부모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기는 하였으나, 초기 애착경험에 대한 기억의 재구조화는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안정 자율형인 어머니B는 초기 애착경험을 즐겁게 회상하면서 자신의 부모의 양육행동을 분석하고 자신에게 적



〈그림 3〉 행동 차원 프로그램 : 회기별 어머니 A의 양육행동 평균점수

용하고자 하였다.

2) 행동 차원 프로그램 과정의 회기별 어머니의 양육행동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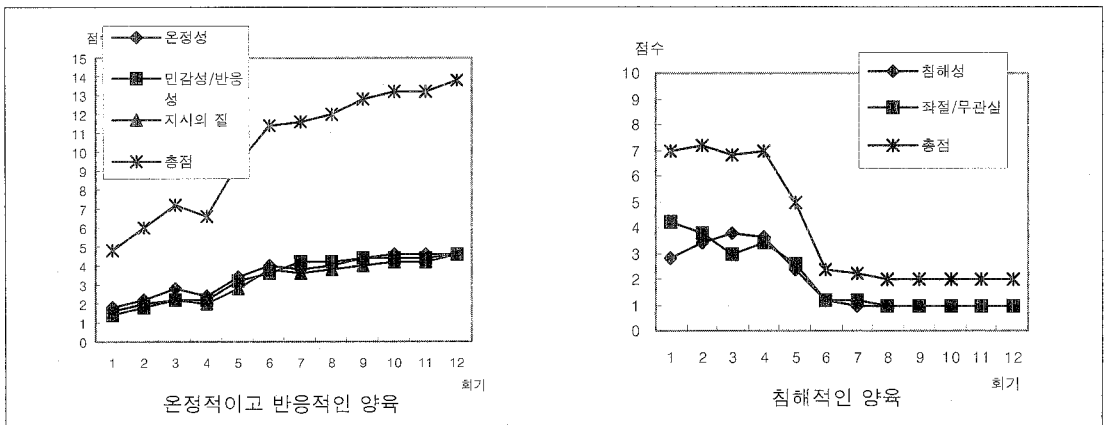
(1) 어머니A

어머니A의 양육행동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행동 차원의 프로그램 회기별 양육행동 평균점수를 구하여 도식화한 결과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 의하면, 어머니A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양육행동의 변화를 보였다.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의 총점 변화를 살펴보면, 프

로그램 초기부터 프로그램 중기인 7회기까지 점수가 크게 향상되었고 프로그램 중기인 8회기에서 후기인 12회기까지는 향상된 점수가 유지되거나 소폭 향상되고 있다. 침해적인 양육행동 총점도 프로그램 초기인 3회기에서 5회기까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프로그램 중기 이후에는 대부분 최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양육행동의 하위항목별로 살펴보면, 어머니A는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의 하위항목인 온정성, 민감성/반응성 및 지시의 질은 거의 같은 양상으로 향상되고 있다. 침해적인 양육행동의 경우, 프로그램 초기에는 좌절/무관심의 점수가 침



〈그림 4〉 행동 차원 프로그램 : 회기별 어머니 B의 양육행동 평균점수

해성보다 높았고 프로그램 후기에도 좌절/무관심의 점수가 간간히 상승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2) 어머니 B

어머니B의 양육행동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행동 차원의 프로그램 회기별 양육행동 평균점수를 구하고 도식화한 것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에 의하면, 어머니B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양육행동의 변화를 보였다. 특히, 프로그램 초기인 1회기에서 4회기까지는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의 총점이 다소 향상된 반면에 침해적인 양육행동의 총점은 1회기 때의 점수가 4회기까지 유지하고 있어, 프로그램 초기에는 활동에 따라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행동과 침해적인 양육행동이 함께 나타나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프로그램 중기(5~8회기)가 되면서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침해적인 양육행동 또한 급격히 감소하여 후기에는 그 점수가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

양육행동의 하위항목별로 살펴보면, 어머니B의 경우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의 하위항목인 온정성, 민감성/반응성 및 지시의 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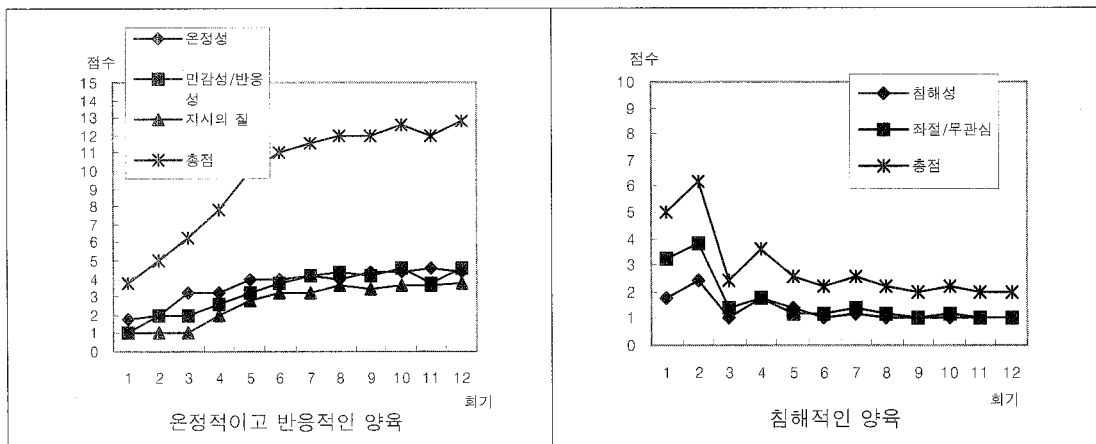
점수가 거의 같은 양상으로 향상되고 있다. 침해적인 양육행동의 경우, 프로그램 초기에는 좌절/무관심은 감소하였지만 침해성의 점수가 다소 증가하였다. 그러나 6회기부터 침해적인 양육의 하위항목들이 1점대로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3) 어머니 C

어머니C의 양육행동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행동 차원의 프로그램 회기별 양육행동 평균점수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5>와 같다.

<그림 5>에 의하면, 어머니C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양육행동의 변화를 보였다.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의 총점은 프로그램 초기를 넘어서 중기(8회기)까지 지속적으로 향상되다가 후기에는 유지 상태를 보였다. 반면에 침해적인 양육행동은 프로그램 초기와 중기(7회기)까지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프로그램 후기에도 간간히 관찰되었다.

양육행동의 하위항목별로 살펴보면, 프로그램 초기(1~4회기)에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의 하위항목 중 지시의 질은 3회기까지 최저



<그림 5> 행동 차원 프로그램 : 회기별 어머니 C의 양육행동 평균점수

점수를 보였고 민감성/반응성도 소폭의 향상이 있었던 반면 온정성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침해적인 양육행동의 경우, 프로그램 초기(1~4회기)에는 좌절/무관심의 점수가 침해성보다 높았고 5회기까지 침해적인 양육의 하위항목들이 증감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프로그램 초기에는 활동에 따라 침해적인 양육과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이 함께 나타나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 후기에도 좌절/무관심의 점수가 감소되었지만 약한 강도로써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이 모두 증진되었다. 세 어머니들 중 어머니B가 가장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행동(13.8점)을 보인 반면 어머니C는 그 점수(12.8점)가 세 어머니들 중 가장 낮았다. 어머니A는 초기에는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의 총점(3.6점)이 세 어머니들 중 가장 낮았으나 후기(13.2점)에는 크게 향상되어 그 변화량이 가장 컸다.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침해적인 양육행동이 모두 감소하였다. 프로그램 후기에 어머니B는 침해적인 양육행동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지만, 어머니A와 어머니C는 간간이 관찰되었다.

V. 논 의

프로그램 효과 검증 결과와 관련하여 몇 가지 논의의 하고자 한다.

첫째, 모래놀이치료를 적용한 모-유아 중심의 애착관계 개선 프로그램은 어머니 자신의 부모에 대한 내적표상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결과를 얻었으나, 어머니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의 내적표상에 대한 변화에서 불안정 몰

입형 어머니A와 불안정 무시형 어머니C간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불안정 몰입형 어머니A는 자신의 부모에 대한 감정과 이해를 표현하면서 부모와의 애착경험에 대한 기억을 재구조화 시켜나갔고, 나아가 자신의 양육경험과 현재 양육행동을 관련지어 생각하게 되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불안정 무시형 어머니C는 자신의 부모에 대한 억눌렀던 감정은 표현하였으나, 더 이상의 진전은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와의 관계형성에 있어 불안정 몰입형의 어머니A와 불안정 무시형 어머니C 간의 애착유형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어머니A는 표상 차원 프로그램 초기부터 자신의 어린시절 기억과 근원가족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아 모래놀이치료 40분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고, 항상 모래놀이치료 시간을 기다렸다는 보고를 한 반면에, 어머니C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고 상담자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세 어머니들 중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모래놀이치료가 끝났다. 따라서 불안정 몰입형 어머니A는 자신의 아동기와 자신의 부모에 대해 이야기하는 많은 기회를 가져 상담자로부터 이해받는 느낌을 받았을 수 있다. 그 결과로 표상 차원 프로그램 초기부터 상담자와 어머니A 사이에 애착중재에서 중요한 요소인 정서적 이해(Main, 1990)를 바탕으로 두터운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던 반면, 불안정 무시형의 어머니C는 상담자와의 정서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신뢰관계가 뒤늦게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관계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어머니A만큼 강하지 못하였다.

이는 애착이론의 접근에서 볼 때, 어머니의 내적표상에 관련된 중재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재자와의 신뢰롭고 지지적인 새로운 애착관계(Bowlby,

1980)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Nezworski, Tolan & Belsky(1988)가 상담자와의 긍정적인 관계경험은 불안애착 표상의 재구성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점은 애착중재에 있어 애착경험에 대한 어머니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통찰에서의(Fraiberg, 1980) 개인차이다. 불안정 무시형인 어머니C는 표상 차원 프로그램 초기에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이고 이상적으로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기억은 회상하지 못하여 모래상자를 꾸미는 것을 주저하였고 실제와 오히려 상반된 기억을 회상함으로써 초기 애착경험에 대한 통찰의 경험이 적었다. 이러한 발견들은 회피적으로 애착된 사람들이 애착관련 사고, 기억 및 느낌들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애착체계를 과소 활성화하는(deactivate) 방어적인 전략을 사용한다는 Bowlby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원호택·이호승, 2003 재인용). 그러나 회기가 갈수록 어머니C는 모래상자안의 자신의 상징(할아버지, 벌 서는 어린 아기, 발가벗은 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애착경험에 대한 기억과 정서적 감정을 표출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어머니 자신의 부정적인 애착경험에 대한 노출을 꺼려하여 이를 언어화하기 힘든 상황에서 모래놀이 작품이라는 시각을 통한 표현방법이 자신의 본모습에 직면케 하여 통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반면 자신의 어린 시절 애착경험에 몰입되어 있는 불안정 몰입형 어머니A는 프로그램 초기부터 애착주체에 따른 모래상자 꾸미기에 적극적이었으며, 자신이 만든 모래상자를 감상하다가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통찰의 경험을 통해 어머니A는 자신의 애착경험을 적극적으로 재구조화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알코올 중독자 자녀로서 자신을 노

출하기 꺼려하는 사춘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배영란(2003)의 연구결과와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이처럼 어머니A와 어머니C의 애착유형으로 인해 상담자와의 관계와 통찰에 대한 경험의 시기와 적극성 측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어머니 자신의 부모에 대한 경험의 재구조화에서도 다른 결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모래놀이치료를 적용한 모-유아 중심의 애착관계 개선 프로그램은 어머니별로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을 증진시켰다.

표상 차원의 프로그램 완료 이후 행동 차원의 프로그램 초기에는 어머니의 바람직하지 않은 침해적 양육행동이 많이 관찰되었으나 행동 차원 프로그램 초기에 속하는 4회기부터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은 급속히 향상되면서 침해적인 양육행동은 급속히 감소하였고 행동 차원 프로그램 중기부터는 그 변화가 후기까지 오래 유지되었다. 이는 어머니의 과거 애착경험을 탐색하는 통찰 지향적인 심리치료 후 어머니의 민감한 양육행동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연구결과(Jacobsen & Frye, 1991)와는 다른 결과다.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다소 지연된 향상과 오랜 유지기간은 먼저, 어머니의 부모와의 애착경험에 대한 개념, 즉 자신의 부모에 대한 내적표상이 자녀와의 실제적인 상호작용 행동으로 전환되는(Crowell et al., 1988)과정과 관련이 있다. 즉, 표상 차원의 프로그램으로 어머니의 내적표상의 변화를 도모한 후 이어서 행동 차원의 프로그램에서 바람직한 양육행동에 대한 워크북을 토대로 한 강의와 토론을 하였다. 더욱이 모-유아 협력적 활동을 통해 실제적인 경험을 근거로 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양

육행동이 향상되었으나 그 전환에 다소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행동적 수준과 표상적 수준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한 후, 어머니들의 침해성은 감소하고 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절한 상호작용과 어머니의 민감성과 반응성이 의미 있게 상승했다는 연구결과(서수정, 2002; 안혜숙, 2001)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애착에 대한 중재프로그램에 행동적 수준의 중재와 함께 부모의 내적표상 수준의 중재가 중요함을 재확인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 변화를 살펴보면, 세 어머니들 중 어머니B가 행동 차원 프로그램 후기에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침해적인 양육행동은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어머니A와 C 역시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은 향상되었으나 행동 차원 프로그램 후기에 침해적인 양육행동이 간간히 관찰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자신의 부모에 대한 어머니의 내적표상은 유아의 애착욕구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정도와 관련이 있다는 Main 등(1985)의 주장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불안정 애착유형의 어머니들은 유아의 애착관련 정보에 대해 주의집중이 제한되어 유아의 어려움과 요구에 대한 신호를 왜곡하거나 차단시켜 화 또는 무관심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안정애착유형인 어머니B와 달리 어머니A와 어머니C는 행동 차원 프로그램 후기에 좌절/무관심이라는 침해적 양육이 다소 관찰된 것은 프로그램 후기가 유아의 애착 신호에 민감하지 못하였음을 말해준다.

종합해 볼 때, 본 모래놀이치료를 적용한 모-유아 중심의 애착관계 개선 프로그램은 어머니와 유아의 애착관계 개선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불안정 애착유아와 어머니의 애착관계 개선을 위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내적표상의 변화를 모두 목표로 하여 다각적인 중재를 시도하였다. 둘째, 모-유아 애착관계 개선 프로그램에 모래놀이치료라는 새로운 중재방법을 적용하여 어머니의 내적 표상의 변화과정을 질적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연구대상 어머니들이 불안정 몰입형, 불안정 무시형 및 안정 자율형으로 다양한 애착유형을 보여 애착 유형별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었다.

애착의 세대간 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애착관계를 위한 치료적 중재보다는 예방적 중재가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불안정 애착유형을 가진 예비 어머니를 대상으로 예방 차원의 중재 프로그램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보애(2003). **모래놀이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 학지사.
- 김정혜(2005). 치료놀이를 활용한 모-자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효과 : 발달지체 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치현·황영희(1998). **모래놀이치료 : 경험과 표현**. 서울 : 동서 문화원.
- 배영관(2003). 알코올중독자 자녀 심리재활을 위한 모래놀이치료 사례연구.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경희(1998). 불안정 애착의 예방과 치료. **정서·학습 장애연구**, 14(2), 175-193.
- 서수정(2002). 정서적 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 안정 애착 형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혜섭(1998). 가정폭력이 여론론적 이론과 체계 이론의 비교 및 치료방법에 대한 연구. **여성가족생활**

- 연구논총**, 3, 51-75.
- 심은미(2001). 애착유형에 따른 어머니-아동 상호작용 특성연구.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재경(1994). 모래상자놀이치료법 Sand-play Therapy. 서울 : 양영각.
- 안혜숙(2001). 애착장애/애착문제 아동의 부모집단 치료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연 · 서영숙 · 이명조(2004). **아동상담과 치료**. 서울 : 양서원
- 이진숙(2001). 유아의 애착표상과 교사-유아관계 및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숙빈(1997). 전반적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모-아 애착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미자(1998). 애착의 세대간 전이-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과 영아의 애착유형.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dam, E. K., Gunnar, M. R., & Akiko Tanaka. (2004). Adult attachment, parenting emotion, and observed parenting behavior : Mediator and Moderator Models. *Child Development*, 75(1), 110-122.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 Basic Books.
- _____. (1982). *Attachment and loss : Vol. 1. Attachment(2nd)*. New York : Basic. (Original work published 1969).
- _____. (1988). *A secure base : Clinical applications of attachment theory*. London : Routledge.
- Bretherton, I., Ridgeway, D., & Cassidy, J. (1990). Assessing internal working models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s; An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for 3-year-olds.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pp.273-308) Chicago, IL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arey, L. J. (2002). 모래놀이치료-아동치료와 가족치료(이정순 · 고인숙 역). 서울 : 하나 의학사.
- Crowell, J. A., & Feldman, S. S. (1988). Mothers' internal models of relationships and children's behavioral and developmental status : A study of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59(5), 1273-1285.
- Don Dinkmeyer, Gary D. McKay. (1985). **당신도 유능한 부모가 될 수 있다 : STEP**. (이경우 편역). 서울 : 창지사(원저 1976년 출판).
- Fraiberg, S. (1980). *Clinical studies in infant mental health*. New York : Basic Books.
- French, T. M., & Alexander, F. (1946). *Psychoanalytic therapy : Principles and application*. New York : Ronald Press.
- George, C., Kaplan, N., & Main, M. (1985). *Attachment interview for adult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y.
- Gossmann, K. E., & Grossmann, K. (1991). Attachment quality as an organizer of emotional and behavioral responses in a longitudinal perspective. In C. M. Parkes, J. Stevenson-Hinde & P. Marris(Eds.), *Attachment across the life cycle*(pp.93-114). New York : Routledge.
- Jacobson, S. W., & Frye, K. F. (1991). Effects of maternal social support on attachment : Experimental evidence. *Child Development*, 62, 572-582.
- Kalff, D. (1966). The archetype as a healing factor. *Psychology*, 9, 177-184.
- Lutkenhaus, P., Grossmann, K. E., & Grossmann, K. (1985). Infant-mother attachment at 12 months and style of interaction with a stranger at the age of three year. *Child Development*, 56, 1538-1542.
- Main, M. (1990). Cross-cultural studies of attachment organization : Recent studies, changing methodologies, and the concept of conditional strategies. *Human Development*, 33, 48-61.
- _____. (1991). Metacognitive knowledge, metacognitive monitoring, and singular(coherent) vs multiple (incoherent) model of attachment. In C. M. Parkes, J. Stevenson-Hinde, & P. Marris(Eds.), *Attachment*

- across the life cycle*(pp.125-159). New York : Routledge.
- Main, M., & Goldwyn, R. (1993). *Adult Attachment Classification System*.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y.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pp.33-35).
- Nezworski, T., Tolan, W., & Belsky, J. (1988). Intervention in insecure infant attachment. In J. Belsky & T. Nezworski(Eds.).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pp.352-386). Hillsdale, NJ : Erlbaum.
- Solomon, J., & George, C. (1996). Defining the caregiving system : Toward a theory of caregiving.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7*, 183-197.
- Speltz, M. (1990). The treatment of preschool conduct problems : Integration of behavioral and attachment concepts. In M T. Greenburg, D. Cicchetti & E. M Cummings(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pp.399-426). Chicago, IL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Van IJzendoorn, M. H. (1995).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parental responsiveness, and infant attachment : A meta-analysis on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7*, 387-403.
- Zeanah, C. H., Mammen, O., & Lieberman, A. (1993). Disorders of attachment. In C. H. Zeanah(Ed.), *Handbook of infant mental health*(pp.332-349). New York : Guilford Press.

2006년 6월 30일 투고 : 2006년 9월 9일 채택